

일본 수출규제 동향(12.20~22)

1. 포토레지스트 규제완화 관련

□ [동향]

-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월 20일 포토레지스트의 대한민국 수출심사시 적용되던 개별허가를 '특정포괄허가'로 전환한다고 발표(2019. 12. 20일자 시행)¹⁾
- 경제산업성은 12월 20일 '포괄허가취급요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통달에 대해'를 통해 포토레지스트에 한해 개별허가를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하였음을 공식(허가 유효기간 : 6개월 → 3년)

<포토레지스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전후 비교>

개별허가	특정포괄허가
· 계약 1건당 수출허가 필요 · 수출허가 유효기간 : 6개월	·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갖는 동일 상대방에 대한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가 · 수출허가 유효기간 : 3년

- 경제산업성은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해당 기업의 해당 품목(포토레지스트)의 반복·계속적인 거래에 한해, 절차를 변경한다”고 발표
- * 일본 경제산업성은 규제를 완화한 배경에 대해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민간용 수출의 실적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설명(NHK 보도)²⁾³⁾
- *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수입하는 한국의 특정 기업(1개사)과 포토레지스트를 생산, 수출하는 일본의 특정 기업(1개사) 간의 거래에 한정하여 특정포괄허가가 적용됨.⁴⁾
- 이에 따라 해당 한일 기업간 거래는 기존보다 좀 더 수월해질 전망

1) 経済産業省(2019. 12. 20), 「包括許可取扱要領の一部を改正する通達について」, 홈페이지 : <https://www.meti.go.jp/policy/ampo/law09.html#20191220> 접속일 : 2019. 12. 21.

2) 「韓国向けの輸出管理 運用を一部見直す 7月以降初めて 経産省」 『NHK NEWS WEB』 (2019. 12. 20).

3) 본격적으로 수출규제가 시행된 7월 4일 이후 경제산업성이 허가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민국 수출은 총 6건임.

4) 「輸出規制、1品目を緩和 / 元徴用工、議長案に否定的 24日、日韓首脳会談へ動く両国」 『朝日新聞』 (2019. 12. 21), 「対韓輸出規制：韓国輸出規制一部緩和 許可期間3年に延長 経産省」 『毎日新聞』 (2019. 12. 21), 「対韓輸出管理一部見直し 半導体材料許可期間を延長 経産省」 『産経新聞』 (2019. 12. 21).

□ [일본 정부 동향]

- 규제의 일부 완화와 관련, 경제산업성은 “특정 기업 간에는 무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⁵⁾
- 또한 12월 20일 경제산업성 한 간부는 “한국 측의 수출관리체제에서 취약함이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수출규제 조치를 지속할 생각임을 시사⁶⁾
- 단, 마이니치(毎日)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향후에도 적절한 수출실적이 쌓인 기업에 한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⁷⁾

□ [일본 언론 동향]

-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경제산업성이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지만, 한국 측이 요구하는 수출규제 전면 재검토(규제 철회)로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전망⁸⁾
- 닛케이는 “한국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관련, 조건부로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규제 전면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경제산업성은 “정치와는 별개”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
- 또한 24일 정상회담에서 (규제 완화 등) 진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면 폐지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논평

5) 「対韓輸出規制、一部緩和 経産省、強化以来初めて」 『静岡新聞』 (2019. 12. 21).

6) 「対韓輸出管理一部見直し 半導体材料許可期間を延長 経産省」 『産経新聞』 (2019. 12. 21).

7) 각주 4의 마이니치 신문

8) 「対韓輸出管理、全面緩和は遠く、経産省「実績で判断」強調。」 『日本經濟新聞』 (2019. 12. 21).